

# 형태소 분석으로 본 근세 일본 詩話의 특징과 변천\*

— 『시가쿠호겐(詩學逢原)』(1763)과  
『단소시와(淡窓詩話)』(1883)를 중심으로

鄭敬珍\*\*

- |                     |                    |
|---------------------|--------------------|
| I. 머리말              | IV. 분석 결과-동사를 중심으로 |
| II. 형태소 분석 방법론      | V. 맺음말             |
| III. 분석 결과-명사를 중심으로 |                    |

## • 국문초록

본고는 에도(江戸)시대 중기의 유학자이자 문인 화가인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의 『시가쿠호겐(詩學逢原)』(1763)과 에도 말기의 유학자이자 교육가 히로세 단소(広瀬淡窓, 1782~1856)의 『단소시와(淡窓詩話)』(1883)를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본고에서는 詩話가 詩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정량적 분석 방법인 형태소 분석과 원문 분석에 입각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여 두 詩話의 어휘 사용 양상과 특징, 변천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분석을 통해 약 100년의 차를 두고 간행된 두 詩話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 B5A16054131)

본 논문 작성에 있어 디지털 분석 관련으로 여러 도움을 주신 김바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이는 근세 일본 지식인의 ‘詩’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기온 난카이, 시가쿠호겐, 시화, 히로세 단소, 단소시와

## I. 머리말

본고는 에도(江戸) 시대(1603~1868) 중기의 유학자이자 문인 화가인 기온 난카이(祇園南海, 1676~1751. 이후, 난카이)<sup>1)</sup>의 『시가쿠호겐(詩學逢原)』(1763)<sup>2)</sup>과 에도 말기의 유학자이자 교육가 히로세 단소(広瀬淡窓, 1782~1856. 이후, 단소)<sup>3)</sup>의 『단소 시와(淡窓詩話)』(1883)<sup>4)</sup>를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詩話’란 원래 중국 宋의 시인 歐陽修(1007~1072)가 쓴 『六一詩話』를 시초로 하는 산문의 일종으로, 중국을 비롯한 조선, 일본에서 다양한 작품이 출판되었으며 주로 시파의 원류나 시인, 詩句의 평가, 詩의 作法 등을 다룬다. 본고에서는 이론서인 동시에 비평 서이기도 한 詩話가 詩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형태소 분석과

- 1) 이름은 瑜, 字는 伯玉, 號는 南海 외에도 蓬萊, 鐵冠道人 등이 있으며 통칭은 余一으로 1676년 紀州 和歌山の 藩邸 가문에서 태어났다. 1689년 에도로 건너가 주자학자인 기노시타 준안에게서 유학을 배웠으며 뛰어난 시 능력으로 문하의 逸才라 불리었다. 이후 동문의 선배이자 유학자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에 의해 1711년 조선통신사의 接待役로 발탁되어 조선 문인들과 시문 창화를 담당하기도 했다.
- 2) 『詩學逢原』은 上下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려이자 시인인 긴류 게이유(金龍敬雄, 1712~1782)가 교정하고 가라혼야키치자에몬(唐本屋吉左衛門)이 출판했다. 게이유의 跋文에 의하면 詩學의 蘊奧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그 근원을 접하게 하기 위해 제목을 詩學逢原이라 정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詩學逢原』은 宋末부터 明初에 간행된 詩話와 明代의 唐詩 해석을 바탕으로 난카이만의 唐詩風을 정립하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中村幸彦(校注) 『近世文学論集』(日本古典文学大系, 第94), 岩波書店, 1966, 29면.) 난카이의 詩話로는 이 외에도 『明詩俚評』(1756)와 『南海詩訣』(1787)가 있다. 『詩學逢原』의 이본 소장처는 <https://kokusho.nijl.ac.jp/work/30955>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 통칭은 寅之助, 玄簡, 求馬라 하고 字를 廉卿, 子基, 號는 淡窓이다. 규슈 분고(豊後) 히타(日田)의 상업 가문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단소는 16살이던 1797년, 후쿠오카의 유학자 가메이 난메이(亀井南冥, 1743~1814)와 그의 아들인 가메이 쇼요(亀井昭陽, 1773~1836)의 문하에 입문하였으나 병으로 인해 2년 후 사숙을 나왔다. 히타로 돌아온 후에는 家督의 자리까지 동생에게 넘기고 학문과 교육에 전념하였다.
- 4) 『淡窓詩話』는 단소 말년 문하생과의 문답 기록을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단소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양자인 히로세 세이손(広瀬青邨, 1819~1884)이 上下 두 권으로 編輯, 간행했다. 단소의 草稿로 추정되는 자료가 일본 국문학자료관 広瀬青邨文庫 『淡窓詩話稿本』(合一冊, 写本)에 수록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淡窓詩話』와는 異同이 많아 세이손이 단소의 저술 중에서 詩話와 관련된 문장을 가져와 추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져 있다(高橋昌彦, 「『淡窓詩話』と『醒齋語録』, 『語文研究』 130,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2021, 242면).

원문 분석을 동시에 진행하여 두 詩話의 어휘 사용 양상과 특징, 변천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근세 일본의 지식인 사회를 살펴볼 때, 특히 儒學이 학문으로 융성하고 문인과 유학자가 본격적으로 등장,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18세기 이후였다. 난카이가 기노 시타 준안(木下順庵, 161~1699)의 문하에서 유학자로 활동한 시기도 이즈음인데, 당시 유학자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에 의해 古文辭學이 본격적으로 주창되면서 擬古主義에 입각한 漢詩가 대대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다.<sup>5)</sup>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아마모토 호쿠잔(山本北山, 1752~1812)을 중심으로 소라이학에 대한 비판이 커지며 경험을 중시하는 性靈주의가 대두하며 일상성이 적극적으로 표현된 漢詩가 다수 양산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세기 이후에는 格調를 중요시하면서도 일상의 표현이 융합된 소위 절충파적인 漢詩가 지식인 사회에 정착하게 되는데 이 시기의 대표적인 시인 중 한 명이 바로 히로세 단소이다. 19세기 중반 메이지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혼돈을 겪게 되는 시기를 근세 일본에서의 유학적 지식 사회의 실질적 終焉이라 가정할 때<sup>6)</sup>에도 중기와 말기를 대표하는 유학자 난카이와 단소가 남긴 두 詩話는 근세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수용된 시대별 詩論의 실질적 양상과 擬古에서 절충으로의 詩風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원문 분석에 입각한 정성적 연구 방법을 중시하면서도 형태소 분석이라는 정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1763년에 간행된 『시가쿠호겐』과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1883년에 간행된 『단소시와』에서 실제 어떤 어휘들이 사용되었

5) 오규 소라이와 그의 문하인 護園學派의 古文辭學의 시풍은 明代 시문을 중심으로 唐詩를 중시하였다. 그러나 오규 소라이의 古文辭學이 대두하기 이전부터 格調풍의 詩를 선호하는 분위기는 기온 난카이의 스승인 기노시타 준안과 그 문하에서도 나타나 있었다(松下忠, 『江戸時代の詩風詩論: 明・清の詩論とその摂取』, 明治書院, 1969, 53면).

6) 근세 일본문학 연구자인 스즈키 겐이치(鈴木健一)는 소위 '에도시대 문학'이라 칭할 수 있는 시기적 구분을 도쿠가와(徳川) 幕府가 시작된 1603년부터 메이지유신이 일어난 1868년까지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鈴木健一, 「江戸詩歌史覚書」, 『日本文学』 60, 日本文学協会, 2011, 2면). 다만, 근세 일본문학 연구의 선구자 나카노 미쓰토시(中野三敏)는 '근세 문학과 문화의 시기를 전기청년기(17세기), 중기장년기(18세기), 후기노년기(19세기)로 구분하고 18세기를 근세 문학과 문화의 성숙기로 규정하였는데 漢詩가 근세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학습, 향유된 시기가 이 18세기에 해당한다(中野三敏, 『十八世紀の江戸文芸』, 岩波書店, 1991, 4~6면). 물론 메이지 시대 이후에도 漢詩에 대한 인기가 일정 기간 지속되었으나 서양 학문이 본격적으로 도래한 이 시기의 漢詩에 대해서는 에도 말기의 유학적 지식 사회의 산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는지를 비교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근세 일본 지식인의 ‘시’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 ‘객관성’을 전제로 한 정량적 분석 방식이 문학 연구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온 난카이와 『시가쿠호젠』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일본 문인화의 선구자이기도 한 난카이가 『시가쿠호젠』을 통해 어떠한 時論을 전개하였는지를 개괄한 정경진(2021a)<sup>7)</sup>와 난카이 時論의 핵심어인 雅와 俗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한 연구인 정경진(2021b),<sup>8)</sup> 문인화의 특성인 ‘寫意’가 난카이의 詩論 속에서 ‘影寫’ 수법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다룬 시라이시 신코(白石真子, 2013)<sup>9)</sup> 등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난카이 時論 속 개념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 것으로 타 詩話와의 비교를 통해 난카이 時論의 특징을 살펴본 논고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히로세 단소의 경우, 규슈(九州) 분고(豊後) 히타(日田)에서 자신의 私塾인 간기엔(咸直園)을 열고 4000명 이상의 제자를 길러낸 단소식 ‘실력주의 교육법’의 실체를 분석한 마에다 쓰토무(前田勉, 2009)<sup>10)</sup>를 비롯하여 단소의 교육활동에 주목한 연구

7) 정경진, 「일본 문인화의 선구자 기온 난카이(祇園南海)의 시론-『시가쿠호젠(詩学逢原)』(1763)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1,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1, 173~192면. 정경진(2021a)는 난카이가 유학자로 활동한 18세기 초 근세 일본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일상이고 세속적인 俗의 요소를 배제하고 古文을 모방하면서 雅를 터득하는 것이 지적 활동의 중심이었으며, 『시가쿠호젠』에서는 대상의 형상을 간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독자가 마음속으로 그 정취를 느끼도록 하는 ‘影寫’ 기법이 중시되었다고 지적했다.

8) 정경진, 「기온 난카이(祇園南海)의 시론으로 보는 雅俗-『詩学逢原』(1763)과 『南海詩訣』(1787)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3,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1, 247~268면. 정경진(2021b)에서는 일상의 개념인 俗에 비해 雅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미의식이었다고 보고 『시가쿠호젠』에 나타난 난카이의 雅俗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雅俗론에서는 俗을 모두 악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雅俗의 변별 지식을 체득하여 俗을 제거하고 雅를 취사선택함으로써 詩道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9) 白石真子, 「『アイシライ』の文学：祇園南海『明詩俚評』に示された「影写」法」, 『金城学院大学論集. 人文科学編』 10, 金城学院大学, 2013, 82~93면. 시라이시 신코(2013)에서는 난카이의 詩話 『明詩俚評』, 『詩学逢原』, 『詩訣』에 나타난 ‘影寫’법과 문인화법과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는데 ‘影寫’로 표현된 詩 속의 ‘사실’은 허구나 실재가 아닌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 前田勉, 「広瀬淡窓における学校と社会」, 『日本文化論叢』 17, 愛知教育大学日本文化研究室, 2009, 35~52면. 단소는 1805년 히타 마메다마치(豆田町) 조후쿠지(長福寺)의 일각에서 학문소인 ‘세이쇼시(成章舎)’를 연 것을 시작으로 1807년부터는 장소를 이전하여 사숙 게이린소(桂林荘)를 운영하였다. 이후, 36세이던 1817년에 간기엔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간기엔은 단소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양자인 히로세 세이손과 제자들에 의해 1893년까지 운영되며 수많은 문학생을

가 주를 이룬다.<sup>11)</sup> 『단소시와』를 다룬 선행연구로는 단소의 漢詩 교육의 의의를 『단소시와』의 時論을 바탕으로 논한 시라이시 신코(白石真子, 2020)<sup>12)</sup>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한국 학계에서는 단소와 그의 詩話에 주목한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sup>13)</sup> 幕末에서 메이지로 이행되는 시기에 교육자이자 유학자, 시인으로 활동한 단소의 위상을 감안할 때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고찰해 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법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에서 도입한 정량적 연구 방법은 주로 ‘디지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sup>14)</sup>의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먼저 詩話와 관련한 연구 성과로는 한국 詩話 데이터 모델 설계 및 데이터 아카이브 편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조선의 학자 洪萬宗(1643~1725)의 시화집 『詩話叢林』의 내용으로 시맨틱 데이터를 설계한 한희연 외(2022)<sup>15)</sup>가 있다. 물론 본고의 온톨로지

길러냈다.

- 11) 단소가 사숙을 열기까지 여러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 요네야마 히로시(米山弘), 「教師, 廣瀨淡窓について - その1 - », 『鎌倉女子大学学術研究所報』 7, 鎌倉女子大学, 2007, 1~10면, 단소의 교육 사상이 확립하기까지의 계보를 정리한 연구 성과로 다나카 가요(田中加代), 「廣瀨淡窓の教育思想の系譜」, 『教育学研究』 58, 一般社団法人日本教育学会, 1991, 349~258면 이 있다.
- 12) 白石真子, 「廣瀨淡窓の詩論における「精思研窮」の意味: 君子修養のための漢詩教育」, 『金城学院大学論集. 人文科学編』 16(2), 金城学院大学, 2020, 177~190면. 시라이시의 견해에 따르면 단소의 漢詩 교육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精思研窮’를 꼽았는데 이는 君子 수양을 목적으로 한 단소의 일관된 교육관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다.
- 13) 한국어 논문으로는 고지마 야스노리(小島康敬), 「히로세 탄소(廣瀨淡窓)와 丁茶山 ‘以心制心’ ‘以禮制心’ ‘以天制心」,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515~568면의 한 편이 존재한다.
- 14) 한국에서의 ‘디지털 인문학’에 관해서는 김현, 임영상, 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한편, 일본에서도 디지털 인문학(デジタル・ヒューマニティーズ)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는데, 福田名津子, 「「デジタル・ヒューマニティーズ 2.0」がもたらす人文・社会科学への影響: 平成27年度デジタル・ヒューマニティーズ関連ワークショップ」, 『一橋大学附属図書館研究開発室年報』 4, 一橋大学附属図書館研究開発室, 2016, 52~65면에서는 ‘Inger Leemans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의 ‘Digital humanities & 18th-century studies’를 비롯하여 Pip Willcox (Bodleian Libraries, University of Oxford)의 ‘The element they lived in: special collections, scholarship and scale’, 姫野順一(長崎大学)의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digital archives at Nagasaki University’의 연구 성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 15) 한희연·지영원·호정·유인태, 「한국 詩話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현 방안 모색-詩話叢林」

(Ontology) 시맨틱 데이터 설계가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기존 아날로그 환경의 연구를 보완·확장한 詩話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sup>16)</sup> 한편 형태소 분석의 경우, 언어학의 분야에서 활용되어온 연구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손영석 외(2012)<sup>17)</sup>는 형태소 분석 사전인 UniDic과 형태소 분석 엔진인 Mecab을 사용하여 대담방송 멀티미디어 코퍼스에서 발화된 구어를 형태소 단위로 분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분류의 패턴을 실제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논함으로써 구어 대상 형태소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연구 성과로는 18세기 후반 에도에서 간행된 풍속 소설 장르인 샤레본(洒落本)의 지문을 형태소 분석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샤레본에 대응하는 UniDic 구축을 시도한 이치무라 다로(市村太郎) 외(2016)<sup>18)</sup>와 일본 근세 후기의 구어 자료에서 히라가나가 부여된 특수 한자의 형태소 분석 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무라야마 미와코(村山実和子) 외(2016)<sup>19)</sup> 등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본고와는 방향성이 다른 언어학 영역의 연구 성과들이다. 그런 점에서 일본 문학 연구의 관점에서 근세 일본의 詩話를 주제로 형태소 분석을 진행한 본고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연구 방법의 시도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실행한 정량적 분석의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두 詩話의 원문을 수집,<sup>20)</sup> 데이터화<sup>21)</sup>한 후, Python<sup>22)</sup> 프로그래밍 언어를 실행할 수 있는

대상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63, 근역한문학회, 2022, 105~146면.

- 16) 물론 이 외에도 조선후기 주요 야담집 20종이 수록된 『정보 한국 야담전집』을 활용해 한국 야담 데이터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한 양승목, 유인태, 「야담의 데이터, 야담으로부터의 데이터: 한국 야담 데이터 모델의 구상」, 『한국문학연구』 68, 한국문학연구소, 2022, 275~306면을 비롯하여 최근 디지털 인문학의 방법으로 진행된 다수의 연구 성과가 있지만, 본고는 어디까지나 형태소 분석이라는 방법에 한정하고 있는 바 그 외 온톨로지 설계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형태소 분석에 관한 성과 중에서도 본고의 취지에 맞추어 일본어 형태소 분석의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7) 손영석·이창익, 「구어 일본어 형태소 정보부여를 위한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의 활용과 문제점」, 『일본언어문화』 22,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2, 187~205면.
- 18) 市村太郎, 小木曾智信, 「文書構造を利用した近世期洒落本の形態素解析」, 『言語処理学会年次大会発表論文集(Web)』 22, 言語処理学会, 2016, 107~110면.
- 19) 村山実和子, 銭谷真人, 藤本灯, 岡照晃, 「近世後期口語資料の形態素解析-ルビ情報を利用した精度向上の試み」, 『じんもんこん2016論文集』, 2016, 69~74면.

Google Colaboratory (Google Colab)을 사용하여 일본어 형태소 분석 도구인 Janome<sup>23)</sup>를 기반으로 형태소 분석<sup>24)</sup>을 수행하였다.<sup>25)</sup> 이후, 분석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품사별 피벗 테이블(Pivot Table)을 생성하고 두 詩話에 수록된 각 어휘의 출현 횟수(카운트)와 상대빈도를 기준으로 결과값을 산출하였다. 그런 다음 본 연구의 판정 기준에 의해 결과값 중 유의미한 품사별 어휘를 추출한 후 실제 이 어휘들이 각각의 詩話 속에서 어떠한 문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결과값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 품사 중 가장 다양한 결과값을

20) 본고에서 입력한 두 詩話의 원문은 中村幸彦(校注) 『近世文学論集』(日本古典文学大系,第94), 岩波書店, 1966에 수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カタカナ로 표기된 부분은 ひらがな로 입력하였으며 일부 기호 등도 필자에 의해 수정한 것이 있음을 밝혀둔다.  
그 외 『시가쿠호겐』의 원문은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이 제공하는 고쿠쇼데이터베이스(国書データベー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자료는 니가타(新潟)대학부속도서관 사노문고(佐野文庫)가 소장 중인 寛政 8년에 再刻된 이본이다(청구기호(0352-266)).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224600/>

아울러 『단소시와』의 원문은 와세다(早稲田)대학교 고전적종합데이터베이스(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청구기호(文庫17W0059))와 고쿠쇼데이터베이스(도쿄예술대학부속도서관 와키모토문고 디지털(脇本文庫デジタル) 컬렉션 소장본, 청구기호(DIG-TKGL-11228)에서도 확인가능하다.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bunko17/bunko17\\_w0059/](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bunko17/bunko17_w0059/)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288428/>

21) 본고에서 사용한 『시가쿠호겐』과 『단소시와』의 전체 데이터는 osf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sf.io/4cgyb>

22) Python은 1990년 암스테르담의 귀도 반 로섬(Guido van rossum)이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23) Janome 0.4.2 <https://github.com/mocobeta/janome>

일반적으로 일본어 형태소 분석 엔진으로 MeCab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고에서는 mecab-ipadic-2.7.0-20070801를 기본 사전으로 탑재한 Janome를 사용하기로 한다. 본고의 Raw Data로 MeCab과 Janome 모두를 실행한 결과, MeCab에 비해 Janome가 기호 분류에서도 기호 이외의 어휘가 포함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なり, たり와 같은 古文體의 품사(동사)도 분류가 비교적 정확하게 구분하였다. 접속사의 경우도 Janome가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故に(그런 이유로)를 분류한 데 비해 MeCab에서는 故를 명사로만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분석 결과가 더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Janome를 채택하였다.

24) 본고에서 사용한 형태소 분석 코드는 김바로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업에서 활용하는 코드를 토대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했다. <https://osf.io/xnur5>

25) 본고에서 사용한 원문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모두 각주 21에 표기한 osf를 통해 공유할 것이다. 이는 두 詩話의 원문데이터뿐만 아니라 일본어 형태소 분석의 과정과 그 결과 등 총체적인 지식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보인 명사와 동사에 초점을 맞춰 분석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헌 분석 방식을 통해 각각의 詩話의 내용적 특징을 논의해 왔지만 이러한 선형적 분석 방법으로는 시대가 다른 여러 작품을 동시에 비교 분석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詩話 전체의 형태소 정보를 기반으로 정량적인 분석과 전통적인 정성적 읽기 방법을 병행함으로써 『시가 쿠호젠』과 『단소시와』의 특징과 내용의 변천 양상을 보다 면밀하게 들여다보고자 한다. 향후 타 詩話의 데이터가 추가로 구축된다면 지금까지 논의된 각 시대별 時論의 특징, 즉, 古文辭派에서 性靈派, 貞隆과로 변화하는 양상이 어떠한지를 보다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Ⅱ. 형태소 분석 방법론

### 1. Raw Data 스키마

본 장에서는 앞서 서술한 연구 방법론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프로세스를 서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 수행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문서 텍스트로 입력된 두 詩話의 내용을 Raw Data로 변환하고 형태소 분석을 위한 데이터 스키마(schema, 도식)를 구축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원시 자료’, ‘원자료’라고도 불리는 Raw Data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기초 데이터를 말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詩話의 원문 내용을 엑셀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Raw Data를 구축하였다. 입력 예시는 다음과 같다.

책이름	권호	소제목	원문	분류
詩學述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凡(およそ)詩を學ばんと欲する者、先(まづ)宜く詩の原を知るべし。詩の原とは、元來詩は心の聲にて、心の字には非ず。六經の教をそれぞれに立る所各別なり。易はト筮の書なり。書は詩命の書なり。禮は儀式の書なり。春秋は記録なり。詩は歌謠なり。皆これを借て教を説く故、詩は聖人、書の音樂の唱歌、人の呪となり、教となるべき者も、三百餘篇選み、後世に示されたり。然れば、詩は元と聲の教にて、外の書の如く、あらはに義理を述て、人に異見する如くなる者には非ず。其聲を聞て、人自然に感通して、惡心止み善心發す。是を「思無邪」と稱し、周南召南を學べと示されたる、皆聲音の上の事なり。	시론
詩學述原	卷之上	詩有境趣	七言絶句作例 境句中に趣を含むは第一なり。然(しかれ)ども是は一句一聯のことなり。全篇四句八句の如きは境趣を分ちて作ることを宜し。先(まづ)絶句、昔へは山水の風景を玩(もてあそ)びて其勝れるを繪に比して、いづれが勝ると作るときは、其風景は境なり。畫に比して勝劣を講ずるは吾が趣なり。今此一趣句に就(つ)いて體例を知らしむ。 境趣中分法(但し三體詩の前置後處なり) 松影倒し影半深夢。數个沙鷗與水安。(二句境) 曾賞江南千本畫一。歸來一筆不申し看。(二句趣) 松影を倒にして半深夢、數个の沙鷗と與に安し。 曾て江南千本の畫を買ふ、歸り來つて一筆看るに中らず。 此詩は、松の影、溪流のすめるにうつり、鷗の安樂に水に泛び遊ぶ景と、とがえも言れざる絶景なりと、先境を喜び、さて、それにつき、前方秋山水畫を好み、江南山水の畫を百千軸買ひとどのへ、上もなま景なりと樂みした、今此處の實景、若に吾ら如くなるを見てかへり、彼の多くの畫を取出して較(くら)べ)あるに、一筆も此景に似て看るべき畫無し。さてさて勝れたる風景かたと嘆美す。「不中看」とは、見るにたらぬ心。	시평
淡窓詩話	卷之上	問 一句一聯の妙處は、古人の講を聞きて之を曉れり。篇法の妙に至りては、未だ窺ひ知ること能はず。應はくは其一端を聞かん。	春蘇州が「故園妙何處」(「聞し雁」 故園妙何處。歸思方悠哉。淮南秋雨夜。高齋聞二雁來一。)の絶句を、沈徳潛讀じて曰はく、「『淮南秋雨夜』の二句、起承に置くべき所なり。却て之を轉結に置く。此詩の妙處、全く此に在り」と。予以爲へらく。王之涣が「白日依山し盡。黄河入し海流。欲し窮二千里目一。更上二一層樓一。(鶻鶻樓)」、是も亦兼が詩と同趣なり。「白日」の二句は登樓の見る所なれば、後に出すべきを、前に掲げ、結句に至りて、始て登樓の事を云ふ。是れ篇法の妙なり。七絶にも此法多し。推して知るべし。	시평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も以て先とすべきや。	詩を作るには、位置を知るを以て先とす。三體詩の前置後處、前處後置、四置四處の類、予殆は無用の事とのみ思へり。今を以て觀れば、實に律詩を學ぶの要務なり。 律詩の前處後置、前置後處、絶句の起承轉合の類、是れ位置なり。位置即ち篇法なり。古詩の位置は段落を明にするに在り。段落の分ち難きは、位置の正しからざるなり。是れ作者即ち篇法あることを知らずして、口々に任せて云ふ故なり。篇法已に正しくして、而後佳句を以て其間に挿む。詩家の絶事畢れり。	시론

〈그림 1〉 『시가쿠호겐』과 『단소시와』의 RAWDATA 입력 예시

〈그림 1〉과 같이 각각의 셀에 입력된 내용이 Raw Data에 해당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Colab에서 Python 실행 시 원하는 형태소 분석 결과값을 얻기 위해 ‘책이름/ 권호/ 소제목/ 원문/ 분류’라는 항목을 구분하여 데이터 스키마를 구성했다. 우선 ‘책이름’은 두 詩話를 비교하기 위한 책 제목을 나타내며, ‘권호’는 두 詩話 모두 ‘상/하(卷之上/卷之下)’의 구조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소제목’은 詩話에 설정된 소제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시가쿠호겐』에는 7개, 『단소시와』에는 19개의 소제목이 존재한다.<sup>26)</sup> 또한 마지막의 ‘분류’ 항목은 ‘시론/시평’으로 나누는데 이는 원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필자의 판단에 근거해 설정한 값이며 ‘원문’ 역시 이 ‘분류’에 따라 입력했다.<sup>27)</sup> 이와 같은 작업을 거쳐 선형적으로 기술되어 있던 문자 텍스트는 데이터화되고 분석의 목적에 따라 ‘책이름과 권호, 소제목, 분류’를 기준으로 다양한 정량 분석이 가능해지게 된다.

26) 『단소시와』의 경우, 히로세 단소의 제자가 한 질문이 그대로 소제목으로 쓰이고 있다.

27) 본고의 목적이 두 詩話의 비교 분석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시론/시평’의 구분이 결과값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나 향후 ‘시론/시평’을 중심으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기에 데이터 입력 단계부터 스키마 설정을 해 두었다.

Raw Data 입력이 끝나면, 형태소 분석을 위해 작성한 엑셀 데이터를 TSV(Tab-Separated Values) 파일로 변환한 후 Colab 상에서 불러오게 된다. <그림 2>와 같이 TSV 파일은 Python의 데이터 분석 지원 라이브러리인 pandas에서 DataFrame으로 전환된 후 특정 행과 열로 지정된다.

```
import pandas as pd
# 파일을 DataFrame으로 전환
rawdata = pd.read_csv('분석rawdata.tsv', sep="#|", header=0, encoding='utf-0', engine='python')
rawdata
```

	책이름	권호	소재목	원문	분류
0	詩學遠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凡(およそ)詩を學ばんと欲する者、先(まづ)宜く詩の原を知るべし。詩の原とは、元來詩は心の聲...	시론
1	詩學遠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宋儒これを知らず、理窟を以て詩を説くは大に誤なり。然るに周の末に至りて、音樂の道亡びて、其節...	시론
2	詩學遠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右の如く昔の音樂の教、世に亡びたるを以て、孔子の時代には、古詩をとくと讀習ひ、よく誦(よみ)...	시론
3	詩學遠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其取扱ひやうの手段は、語孟左氏禮記等に委く出でたり。後世詩を學ぶ人、この取扱を忘れ、態々自分...	시론
4	詩學遠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是昔日の關連なる語、後世には長く華美になり來ること、韓公所レ講の如く、周公より以下は、其説長...	시론

<그림 2> Colab 화면의 예시

이 단계에서 일본어 형태소 분석 라이브러리인 Janome를 통한 형태소 분석이 진행된다. 『시가쿠호겐』과 『단소시와』라는 각각의 서적을 기준으로 실행되므로, 형태소 분석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위 <그림 2>에서 3번째 열<sup>28)</sup>에 해당하는 ‘원문’이 되고 분석 기준은 0번째 열인 ‘책이름’이 된다.<sup>29)</sup> 분석을 실행시키면 먼저 각각의 형태소가 한 번씩 카운트된 행렬값 ‘32253rows × 6columns’이 도출되고 그다음 단계에서 형태소와 품사, 분류가 합쳐진 카운트의 총합이 표시된 ‘5942rows × 6columns’의 행렬값이 나타난다. 이는 두 詩話의 전체 형태소 개수가 총 5942개임을 의미하는데 세부적으로는 『시가쿠호겐』이 2705개, 『단소시와』가 3237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었다.<sup>30)</sup> 이렇게 형태소 분석이 완료되면 최종 결과를 엑셀 파일로 생성해 주는데 여기까지가 Colab에서의 분석 과정에 해당한다.

28) Python에서의 열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원문’은 3번째 열에 해당한다.

29) 본고에서는 ‘책이름’을 기준으로 형태소를 분석하였지만, 예를 들어 ‘시론/시평’이 기준이 될 경우에는 분류1에 ‘책이름’, 분류2에 ‘분류’를 설정해 주면 된다.

30) Janome 형태소 분석은 ‘품사기본’과 ‘품사심화1’, ‘품사심화2’로 분류되는데 분석에서는 ‘품사기본’과 ‘품사심화1’까지만 채택하였다. ‘품사기본’은 ‘필러, 감동사, 기호, 동사, 연체사, 명사, 부사, 접두사, 접속사, 조동사, 조사, 형용사’로 구성되는데 이 중 ‘기호’ 안에는 ‘공백’까지 포함되어 있다.

## 2. 결과값 분석을 위한 데이터 정제 작업

두 詩話의 형태소 분석 결과값이 도출되면 다음으로는 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한 작업인 데이터 정제 과정이 필요하다. 정량적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값 가운데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정확한 결과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출현 횟수(카운트)뿐만 아니라 각 어휘가 詩話 별로 얼마나 출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빈도를 추가로 산출하고 품사별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해 주었다.

우선 전체 품사 기준의 결과값을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명사가 『단소시와』에서 7923회 출현, 상대빈도가 42.55%였으며 『시가쿠호겐』의 명사는 총 5606회 출현, 상대빈도 41.1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조사, 기호, 동사, 조동사, 접두사, 부사, 형용사, 접속사, 필러(filler), 감동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형태소 (모두)					
열 레이블					
淡窓詩話		詩學逢原			
행 레이블	합계 : 카운트	합계 : 상대빈도	합계 : 카운트	합계 : 상대빈도	
名詞	7923	42.55%	5606	41.12%	
助詞	3910	21.00%	3104	22.77%	
記号	2810	15.09%	2020	14.82%	
動詞	1889	10.14%	1394	10.23%	
助動詞	999	5.36%	658	4.83%	
接頭詞	369	1.98%	238	1.75%	
副詞	286	1.54%	218	1.60%	
形容詞	285	1.53%	204	1.50%	
接統詞	118	0.63%	127	0.93%	
連体詞	27	0.14%	46	0.34%	
フィラー	3	0.02%	13	0.10%	
感動詞	2	0.01%	4	0.03%	
(비어 있음)					
<b>총합계</b>	<b>18621</b>	<b>100.00%</b>	<b>13632</b>	<b>100.00%</b>	

<그림 3> 품사별 출현 횟수 및 상대빈도

이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명사→동사→부사→접속사→형용사→기호의 순으로 각각의 피벗테이블을 작성하여 분석에 필요한 유의미한 어휘를 품사별로 추출해 주었다. 이때 ‘유의미한’ 어휘란 실제 비교 분석에 사용될 어휘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출현 카운트가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sup>31)</sup> 본 연구에서는 각 품사별 결과값 중에

서 불필요한 어휘를 제외시킨 후 분석에 사용할 ‘유의미한’ 어휘 후보군을 (1)양쪽 모두에 등장하며 출현 빈도가 비슷한 어휘, (2)양쪽 모두에 출현하나 출현 빈도의 차이가 큰 어휘, (3)한 쪽에만 등장한 어휘라는 판정 기준에 따라 재분류해 주었다.<sup>32)</sup> 물론 (1)~(3)을 통해 나온 결과값 모두가 분석 대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1)과 (2)의 비교가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명사’와 ‘동사’를 중심으로 (1)과 (2)의 과정을 통해 추출된 어휘를 본문 내용과 대조해 가며 분석을 진행하였다.<sup>33)</sup>

### Ⅲ. 분석 결과-명사를 기준으로

본 장에서는 먼저 ‘명사’를 기준으로 두 詩話에서 (1)양쪽 모두에 등장하며 출현 빈도가 비슷한 어휘, (2)양쪽 모두에 출현하나 출현 빈도의 차이가 큰 어휘를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먼저 (1)의 결과값 중 『시가쿠호겐』과 『단소시와』 모두에서 5회

31) 두 詩話의 명사 중 카운트값과 상대빈도 순으로 보면 詩(383/2.37) - (283/1.75) こと(269/1.66)  $\searrow$  (262/1.58) 등이 상위에 등장하며 동사의 경우는 する(540/3.23) なる(165/1.05) ふる(138/0.84) ある(119/0.74) する(88/0.59) 등이 그렇다. 그러나 ‘유의미한’ 단어의 추출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어휘는 처음부터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32) 명사와 동사에 적용한 (1)과 (2)의 판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양쪽 모두에 등장하며 출현 빈도가 비슷한 어휘는 5회 이상의 카운트, 0.03 이상의 상대빈도로 출현한 어휘 중 두 詩話의 빈도 차이가 최소 0~ 최대 0.06이내의 결과값이다. 가령 분석 대상 중 (1)의 명사에서 빈도 차이가 가장 큰 어휘는 詩로 『시가쿠호겐』 1.15(상대빈도), 『단소시와』 1.21로 0.06의 차이가 있었고 동사에서는 ‘作る’(짓다)가 『시가쿠호겐』 0.29, 『단소시와』 0.26으로 0.03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 (2)양쪽 모두에 출현하나 출현 빈도의 차이가 큰 어휘는 1회 이상 출현한 어휘 중 두 詩話에서의 빈도 차이가 최소 0.05 이상인 어휘를 말한다. 아울러 본문과의 대조를 통해 ‘유의미한’ 어휘로 선정된 결과값 중에서도 분석에 사용되지 못한 어휘가 있다는 점도 밝혀둔다.

33) (3)의 한쪽에만 등장한 어휘 중에서 주목해야 할 어휘는 『단소시와』에만 등장한 명사 어휘 ‘予(나)’(카운트:34, 상대빈도:0.18)로 ‘予’는 집필자인 단소를 가리키는데 이를 통해 객관적 이문서의 성향이 강한 『시가쿠호겐』에 비해 『단소시와』는 집필자의 주관이 강하게 반영된 詩話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3)의 결과값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하였으나 ‘予(나)’의 예와 같이 비교 대상 중 한쪽에만 등장하는 고빈도 어휘는 해당 詩話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값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판정 기준을 (2)와 (3)으로 나눌 필요가 있으며 출현 카운트값이 0이나 1이냐는 관점에 따라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만, (3)의 경우 많은 수의 詩話를 비교 분석할 때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출현한 유의미한 어휘를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1)을 기준으로 한 명사 어휘 분석 결과(○는 카운트값/상대빈도, %는 생략)

	단소시와	시가쿠호겐
명사	詩(226/1.21) 人(139/0.75) 云(58/0.31)	詩(157/1.15) 人(81/0.59) 云(79/0.58)
	句(74/0.40) 言(44/0.24) 情(21/0.11)	句(52/0.38) 言(28/0.21) 情(25/0.18)
	心(27/0.14) 意(26/0.14) 法(18/0.10)	心(18/0.13) 意(15/0.11) 法(16/0.12)
	實(18/0.10) 花(17/0.09) 景(20/0.11)	實(12/0.09) 花(21/0.15) 景(18/0.13)
	我(16/0.09) 體(14/0.08) 國(10/0.05)	我(13/0.10) 體(13/0.10) 國(8/0.06)
	雅俗(5/0.03) 人情(5/0.03)	雅俗(7/0.05) 人情(6/0.04)

우선 〈표 2〉에 나타난 결과는 詩話라는 장르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어휘들이라 할 수 있다. 단, 두 詩話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어휘라고 해도 반드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각 어휘가 문맥상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어휘 중에서 詩의 본질을 설명하는 키워드로서 ‘情’과 ‘心’, ‘意’, ‘雅俗’, ‘人情’에 주목해 보기로 하자. 우선 ‘情은’ 인간이 본래 가진 마음의 움직임을 뜻하는 ‘人情’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고, ‘心’, ‘意’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나타내는 의미로도 쓰이는데<sup>34)</sup> 두 詩話에서도 이들 어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등장한다. 구체적으로 『시가쿠호겐』에서는 “사물을 보고 情을 느껴 (시를) 짓는 것이 興이며 情의 표현에는 雅語와 俗語가 있다.”고 정의한다.<sup>35)</sup> 또한 “결국 詩는 人情의 소리인데 자연의 眞情을 옮겨놓은 것을 詩라고 한다.”<sup>36)</sup>, “본래 詩는 心의 소리이지 心의 字가 아니다.”<sup>37)</sup> 며 “詩는 人情을 吟詠하기 위한 소리의 도구”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한편 『단소시와』에서도 시는 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한발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34) 정의는 『일본국어대사전』을 따랐다. 『일본국어대사전』에서는 心·情·意를 모두 마음(こころ)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35)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物を見に就て、情感じて作るを興とす。…… 其情を述るに、雅語あり、俗語あり、先俗語は常語なり。”

36) 『詩學逢原』 卷之下, 「雅俗」, “畢竟詩は人情の聲なれば、天誠自然の眞情をうつしたる所を詩とす。”

37)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元來詩は心の聲にて、心の字には非ず。”

둘로 나누면 意와 情이라고 할 수 있는데 意는 是非利害를 판단하는 것이며, 어떤 것의 無益함을 알면서도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情이다. …… 文은 주로 意를 말하기 위한 것이며 詩는 情을 주로 표현한다.”<sup>38)</sup>고 논하였다.

한편, 『시가쿠호젠』에서는 “본래 雅俗의 논리란 존재하지 않지만 雅라면 듣기에 좋고 俗은 듣기 거북하기 때문에 雅를 좋아하고 俗을 싫어한다. 三百篇 중에는 九分이 雅이고 一分은 俗이다.”<sup>39)</sup>며 雅俗의 특성과 雅俗 구분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논하고 있다. 『단소시와』 역시 “(詩의) 시대는 차별해서는 안 되지만 잘하고 못함(巧拙)과 雅俗의 여부는 차별해야 한다.”<sup>40)</sup>고 해, 두 詩話 모두 俗되지 않고 雅의 품격을 갖춘 것이 詩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情과 心, 意, 雅俗, 人情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詩의 본질을 보여주는 주요 어휘로 근세 전기와 후기의 詩話 모두에서 중요시한 개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2)양쪽 모두에 출현하나 출현 빈도의 차이가 큰 명사 어휘를 분석해 보자. (2)를 통해 앞의 (1)과는 반대로 각각의 詩話가 어떤 어휘를 중요시했는지 즉, 각 詩話의 방향성과 특징이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표 3〉 (2)를 기준으로 한 명사 어휘 분석 결과(상대빈도 %는 생략)

명사 어휘명	단소시와		시가쿠호젠	
	카운트	상대빈도	카운트	상대빈도
字	28	0.15	60	0.44
絶句	14	0.08	4	0.03
韻	14	0.08	1	0.01

38) 『淡窓詩話』 卷之上, 「問 詩を學ぶの益は、孔子の言に盡せり。然れども今の詩は古の詩に非ず。故に世儒務めて其無用を論ず。如何心得べきや。’, “凡そ人の心中を二つに分てば、意と情となり。意は是非利害を判斷して、有益の事は之を爲し、無益のことは之を爲さず。是れ意識の職なり。さて其無益と云ふことを知りつ、忍び難く棄て難き所あるは、是れ情なり。…… 文は意を述ぶることを主り、詩は情を述ぶることを主る。”

39) 『詩學逢原』 卷之下, 「雅俗, “本は雅俗の論は無きことなれども、雅なればききよろしく、俗なればきき悪き故、雅を好み俗を嫌ふ故、三百篇九分は雅にて、俗にて面白き所は一分ならてでは無し。”

40) 『淡窓詩話』 卷之上, 「秦韶問 先年人あり。先生に問ふに詩の要訣を以てす。先生自ら書し與へ玉へし語あり。……’, “初時代は差別せざれども、巧拙雅俗は差別すべきことなり。”

趣	11	0.06	42	0.31
境	9	0.05	31	0.23
今	32	0.17	6	0.04
古人	34	0.18	2	0.01
王	35	0.19	3	0.02
杜	24	0.13	8	0.06
孟	15	0.08	2	0.01
李	19	0.10	3	0.02
古詩	24	0.13	1	0.01
宋	19	0.10	4	0.03
唐	17	0.09	5	0.04
畫	1	0.01	24	0.18
雅	6	0.03	16	0.12
俗	6	0.03	17	0.12
佳	16	0.09	2	0.01
妙	26	0.14	8	0.06
味	14	0.08	2	0.01

〈표 3〉은 (2)의 결과값 중 유의미한 명사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sup>41)</sup>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어휘가 『시가쿠호젠』에 비해 『단소시와』에서 높은 빈도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소시와』가 100년 전 발표된 『시가쿠호젠』의 내용을 반영하면서도 특정 어휘들에 대해 더욱 비중있게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지금 부터는 위 명사의 출현 빈도와 실제 詩話의 문맥에 등장하는 의미의 연관성을 고려해 (1)字/絶句/韻 (2)趣/境 (3)今/古人 (4)王/杜/孟/李 (5)古詩/宋/唐 (6)畫/雅/俗/佳 (7)妙/味로 그룹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1) 〈표 3〉에서 제시한 어휘들은 (2)그룹 명사의 결과값 중 일부이다. 분석에 반영되지 않은 명사 어휘로는 後世, 今日, 音, 昔, 韻, 唐人, 古今, 詞, 細 등이 있다. 이들 어휘에 대해서도 본문 확인을 진행하였는데 〈표 3〉에 소개한 어휘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 1) 字/絶句/韻

『시가쿠호젠』은 첫머리에서 明의 문인 都穆(1458~1525)의 『南濠詩話』의 내용을 인용하며 “무릇 詩를 배우려는 자는 먼저 詩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詩의 근원이란 원래 詩는 마음의 소리이지 마음의 字가 아니라는 것이다.”<sup>42)</sup>라고 썼다. 『시가쿠호젠』에서는 字를 선택하는 솜씨가 서투르거나 비속하면 詩 전체의 語勢가 凡俗의 常語 즉, 일상어가 되어버린다고 지적하고 字 선택에서의 雅俗 구분을 강조했다.<sup>43)</sup> 이에 반해 『단소시와』에서는 字와 雅俗이 연관어로 등장하지 않고 “詩는 韻脚의 字를 잘 골라야 한다. 絶句에서 가장 그렇다. 즉 結句에 韻 중 가장 선호하는 字를 써야 한다.”<sup>44)</sup>고 해, 字와 絶句, 韻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또한 七言絶句는 淸의 시인들이 가장 잘 지었다고 보고 이들의 絶句에는 언제나 새로운 취향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취향이 생겨나게 한다고 평하였고, 韻에 관해서도 七言絶句의 起句에 韻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른 격식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孔子의 가르침대로 情의 字를 형용하는 것은 溫柔敦厚의 네 글자가 유일하다고 보고 자신의 문하에서 詩를 가르칠 때도 이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했다.<sup>45)</sup>

## 2) 趣/境

趣와 境은 『시가쿠호젠』에서 더 높은 빈도로 등장했을 뿐 아니라 두 어휘가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시가쿠호젠』에서 말하는 境이란 心象을 끌어와 詩境을 형성하는 대상을 가리키며, 趣는 대상에 맞춰 詩境을 형성하는 心象을 의미하는데 “詩는 境趣 두 가지로 이루어지며 외부의 형태는 없다. …… 趣는 意, 趣向이다. 내 마음에 생각한 것, 알고 있는 것, 생각나는 것, 배려하는 것, 즐기는 것, 무릇 마음의 작용을 모두 이름 붙여 趣라 한다.”<sup>46)</sup>고 정의했다. 또한 作詩에서 境과 趣의 분량을 적절히

42)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凡(およそ)詩を學ばんと欲する者、先(まづ)宜く詩の原を知るべし。詩の原とは、元來詩は心の聲にて、心の字には非ず。”

43) 『詩學逢原』 卷之下, 「雅俗」, “雅俗の内に事の雅俗あり、字の雅俗あり、趣の雅俗あり。”

44) 『淡窓詩話』 卷之下, 「問 五七絶を作るには、如何心得べきや」, “詩は韻脚の字を擇むべきことなり。絶句に至りては、最も然りとす。乃ち結句に韻中第一の好き字を用ふべし。”

45) 『淡窓詩話』 卷之上, 「問 詩を學ぶの益は、孔子の言に盡せり。然れども今の詩は古の詩に非ず。故に世儒務めて其無用を論ず。如何心得べきや」, “孔子曰はく、「溫柔敦厚は詩の教えなり」と。溫柔敦厚の四字、唯一の情の字を形容するのみ。是れ予が弟子をして詩を學ばしむる所以なり。”

배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단소시와』에서의 趣는 趣向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가령 ‘宋詩의 趣가 사랑스럽다’라든지, “陶淵明(365~427) 詩의 오묘한 점은 辭는 오래되었지만 趣가 새롭다는 점이다.”<sup>47)</sup> 등의 내용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시가쿠호겐』에서의 趣는 境과 함께 詩論의 내용에서 등장하는 데 반해 『단소시와』에서의 趣는 詩 감상의 趣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今/古人

속과 古人은 두 詩話가 현재와 과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휘이다. 우선 과거를 나타내는 古人은 『단소시와』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시가쿠호겐』에서 2번 등장한 古人이 중국 옛 시인의 詩風을 설명하는 문장에서 사용되었다면, 『단소시와』에서의 古人은 비판적인 관점의 문맥에서 등장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가령 “굳이 古人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나의 五家の 詩에 있어서 교호(享保, 1716~1736) 시기의 사람들이 明의 시인 李攀龍(1514~1570)의 (詩를) 배우는 것과 지금 사람들이 南宋의 시인 陸游(1125~1209)를 배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sup>48)</sup> 만약 우리 문하에 있는 자가 이러한 詩를 모방한 후 이것이 내 스승의 유파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本意를 크게 거스르는 일이다. 먼저 이 意를 숙지해야 한다.”<sup>49)</sup>고 강조하였으며 지금 사람(今の人)은 산림의 풍경을 詩로 읊기지만 情이 느껴지지 않고 그저 古人의 말을 모방하기만 한다면 중국 古人의 詩를 모방하는 것에 경도된 당시의

46) 『詩學逢原』 卷之上, 「詩有境趣」, “詩は境趣の二つより外の形は無き者なり。…… 趣とは意趣向なり。我心に思ふこと、知ること、思ひ出すこと、思ひやること、樂むこと、凡(およそ)心の用、皆名付て趣とす。”

47)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陶王孟章柳の詩を好み玉ふと聞及べり。五家の妙處及び長短、何れの處にありや」, “陶詩の妙、其辭を古にして、其趣を新にするに在り。”

48) 교호 시기 에도에서는 오구 소라이의 문하인 겐엔주쿠(藪園塾)를 중심으로 古文辭學이 본격적으로 유행하였는데 이는 明의 古文辭派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에도 古文辭派는 ‘文은 오직 秦漢, 詩는 오직 盛唐’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 여기서 단소가 언급한 李攀龍은 明의 古文辭派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49)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陶王孟章柳の詩を好み玉ふと聞及べり。五家の妙處及び長短、何れの處にありや」, “強て古人を模倣することあるべからず。予が五家の詩に於ける、享保の人の于鱗を學び、近人の放翁を學ぶなどは、大に同じからず。若し我門に在る者、是等の詩を模倣して、是れ我師の流派なりと云はば、大に予が本意に背くことなり。先此意を熟知すべし。”

분위기를 경계하고 비판했다. 또한, 『단소시와』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금 사람들은 시 짓기에만 급급하고 詩를 제대로 읽을 여유를 갖지 못해 재주가 넘쳐나더라도 지식이 부족함으로 古人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sup>50)</sup>라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비판적 시선은 속(지금)이라는 어휘의 사용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가령, “지금 사람의 詩는 서술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지금 사람의 詩는 의무적으로 風流의 모습을 옮겨놓았다. …… 지금 사람은 詩를 짓고는 바로 버리고 기록하지 않는 자가 많다. …… 무릇 지금 사람은 시 짓는 것은 좋아하지만 古詩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sup>51)</sup> 등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단소가 살았던 에도 말기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소위 ‘詩의 대중화’가 이루어졌지만 詩를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을 엿볼 수 있다.

#### 4) 王/杜/孟/李

王/杜/孟/李는 모두 중국 唐의 시인들로 王은 王維(699~759)이며, 杜는 杜甫(712~770), 孟은 孟浩然(689~740), 李는 李白(701~762)이다. 물론, 두 詩話에는 이들 외에도 중국 및 일본 시인이 거론되지만 『단소시와』에서 이들 네 명에 대한 기술이 특히 많다는 점은 唐 시인에 대한 단소의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들에 대한 언급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문맥 속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단소시와』에 기록된 단소의 입장을 살펴보면 “나는 陶·王·孟·韋·柳의 다섯 명의 詩를 사랑해서 그들의 詩를 예전부터 읊조려 왔다. 그러나 그들의 詩를 詩法으로 삼아 배운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古今の 사람이 서로 다른데 (공부한다고 해서) 그들의 경지까지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 사람에게는 주어진 재능(天分)이 있으므로 억지로 古人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sup>52)</sup>라고 밝히고 있다. 단소는

50)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今の人詩を作るに急にして、詩を讀むに違あらず。故に才餘りありても識足らず、古人に及ばざる所以なり”

51)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今人の詩は、叙事にも非ず。…… 今人の詩、務めて風流の態を寫す。…… 今の人詩を作り棄てにして録せざる者あり。…… 凡そ今の人、詩を作ることを好んで、古詩を讀むことを好まず。”

52)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陶王孟韋柳の詩を好み玉ふと聞及べり。五家の妙處及び長短、何れの處にありや」, “陶王孟韋柳の五家、予其詩を愛して之を諷詠すること、頗る熟せり。然れども

古詩를 많이 읽고 암송하기도 했지만 唐 시인의 詩法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소시와』에서의 서술은 대체로 평론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면 王維에 대해서는 정치 묘사를 아주 훌륭하게 잘한다고 보았고 “王維는 여러 體에 뛰어났는데 (사람들은) 그의 詩가 李白이나 杜甫보다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그들과) 맞서기에 충분하다.”<sup>53)</sup>는 등의 평가를 하고 있다. 杜甫에 관해서도 “杜甫와 王維는 정치 묘사를 잘했는데 그렇다고 그 趣가 같은 것은 아니다. 杜甫는 物과의 일체에 정통하다.”<sup>54)</sup>고 보았다. 한편 단소는 李白이나 杜甫의 詩에도 어느 정도의 흥미 있다고 지적하면서 詩 전체에 흥미 아예 없는 것보다는 흥미 있어라도 佳句가 있는 詩를 짓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또한 “(詩를) 짧게 짓고, 적게 지으면서 세상에 (자신의 詩를) 알리려 한다면 王維와 孟浩然, 또다른 唐의 시인 韋應物(736~791)과 柳宗元(773~819)에게서 배워야 한다.”<sup>55)</sup>고 해, 唐 시인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다.

## 5) 古詩/宋/唐

古詩/宋/唐 역시 『단소시와』에서 월등히 높은 빈도로 등장한 어휘들이다. 이중 古詩는 『시가쿠호겐』에서 “특히 孔子의 시대에는 古詩를 읽고 배우고, 자주 암송함으로써 스스로의 義理를 밝혀...”라는 문장 속에서 한 번 등장하는 데 반해, 『단소시와』에서는 24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깨달음을 얻으려거든 먼저 古詩를 熟讀해야 한다. …… 스스로 古詩의 맛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쓴 詩의 의미도 분명해질 것이다<sup>56)</sup>”, “나는 古詩 암송을 좋아하지만 시 짓기를 반드시 좋아하지는

---

其詩を詩法として之を學ぶには非ず。凡そ古今の人相及ばず。且人々の天分あり。強て古人を模倣することあるべからず。”

- 53)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陶王孟韋柳の詩を好み玉ふと聞及べり。五家の妙處及び長短、何れの處にありや、, “王は諸體皆長ぜり。其詩李・杜に及ばずと雖も、亦相抗するに足れり。”
- 54)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陶王孟韋柳の詩を好み玉ふと聞及べり。五家の妙處及び長短、何れの處にありや、, “杜王皆景を寫すに巧にして、其趣同じからず。杜は體物に精し。”
- 55)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短く作りて少く作りて、世に傳はらんことを欲せば、王孟韋柳を學ぶべし。”
- 56) 『淡窓詩話』 卷之上, 「問 詩は禪の如し悟を得るに在りと。小子輩如何なる處に力を著けて悟を得べきや、, “今悟を得んと欲せば、先づ古詩を熟讀すべし。…… 己に古詩の味を悟れば、己れが詩の意味も亦明かなるものなり。”

않는다. …… 만약 나의 방식을 꼭 따르고 싶다면 먼저 古詩를 熟練한 후에 詩를 지어야 할 것이다.”<sup>57)</sup>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앞서 唐의 시인들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단소에게 古詩는 詩의 세계를 깊이 알게 하는 음미의 대상이자 학습의 대상이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역설적으로 당시 일본 지식인 사회에서 古詩를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를 비판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古詩의 중요성을 피력하고자 한 단소의 입장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宋과 唐 즉, 宋詩와 唐詩에 대한 두 詩話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 어휘들 역시 카운트나 상대빈도로만 보면 『단소시와』에서 더 많이 등장하는데 『시가쿠호젠』에서는 唐과 관련하여 唐詩의 특징을 언급하는 정도였고 반대로 宋에 대해서는 宋에 이르러 詩가 이치나 주장을 펼치는 도구로 전락하고 사람들 간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며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어 “詩는 이치에 대해 말하고 논의를 펼치는 도구가 아니다. 宋人은 詩를 통해 道學을 논하고 史論, 人物에 대해 논한다.”<sup>58)</sup>고 했다. 唐과의 비교에서도 “宋詩는 唐詩의 正大함에 미치지 못한다. 宋詩의 趣는 좋아 할 수 있지만 그 法은 진실되지 못하니 배워서 안 된다. 唐人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낫다. (특히) 七言律詩에 있어서는 宋을 배워서 안 된다.”<sup>59)</sup>며 노골적인 비판의 시선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단소시와』에서는 “享保 시기에는 明의 詩를 배웠고 덴메이(天明, 1781~1789) 시기에는 宋을 배웠다. 나는 唐人의 詩를 중심으로 삼되 宋과 明의 詩도 함께 사용한다.”<sup>60)</sup>라며 절충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晩唐과 淸人の 詩는 읽는 이에게 큰 효과가 있다’라든지 ‘자신이 지은 詩를 가지고 唐·宋·明·淸

57) 『淡窓詩話』 卷之上, 「青木益問 當今の詩人、我門より盛なるはなし。……」, “故に予は古詩を誦することを好む。自ら詩を作ることは、必しも好まず。…… 若し必ず予が所爲に倣はんとらば、先古詩に熟練して、而して後ち詩を作る可きなり。”

58)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詩は理窟を述べ、議論をする道具に非ず。宋人詩を以て道學を論じ、史論人物を論ず。”

59)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宋詩は唐詩の正大なるに及ばず。宋詩の趣は愛すべし。其法は妄に學ぶべからず。唐人を師とするには如かず。七言律最も宋を學ぶべからず。”

60)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 論詩 詩の結末に、「誰明 六義要。以起一時衰。」とあり。如何なる處を以て、今時の衰を起し玉ふや、」, “享保は明を學び、天明は宋を學ぶ。予は唐人を主として宋明を兼用す。”

의 여러 시인의 詩와 비교하며 읽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를 통해 특정 시기나 시인, 詩派, 詩風에 경도되지 않는 단소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결국 자신의 詩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여러 시대의 詩를 균형있게 배우고, 여러 古詩와 비교할 수 있는 견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라 볼 수 있다.

### 6) 畫/雅/俗/佳

앞서 『시가쿠호겐』의 핵심 개념인 雅俗에 대해 언급하였다. 『시가쿠호겐』에서는 雅와 俗 각각의 어휘 역시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데 가령 “(詩가) 雅라면 듣기가 좋고 俗이라면 듣기 힘들기에 雅를 좋아하고 俗을 미워해야 한다. …… 통렬히 俗을 버리는 것이 詩病을 고치는 첫 번째 방법이다.”<sup>61)</sup>라고 말할 정도로 雅를 중요시했다. 한편 『시가쿠호겐』에서는 雅의 한 종류로 畫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난카이가 “畫를 비교하며 우열을 논하는 것이 나의 취미<sup>62)</sup>”라고 밝힐 정도였다. 난카이는 雅의 종류로 詩 이외에도 絲竹, 管弦, 琴棋, 書畫, 漁獵, 酒宴 등을 꼽고 있다.

한편, 『시가쿠호겐』에서 雅가 강조되었다면 『단소시와』에서는 佳의 개념이 중요시되었다. 특히 佳는 句와 합쳐져 佳句라는 어휘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생에 하나의 佳句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다. 佳句는 대부분 景을 묘사한 句에 나타난다.”<sup>63)</sup>고 주장했다. 단소는 또한 詩를 배우는 사람에게서 네 가지의 잘못된 병(詩病)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詩를 빨리 짓기에 급급해 속고하거나 고민하지 못하는 것, 둘째로는 무작정 많이 짓고자 하나 작품의 질은 생각하지 않는 것, 셋째는 전체적으로 결점을 없애는 데만 치중해 佳句를 지으려 하지 않는 것, 넷째는 짓기 힘든 어려운 詩를 지어 남에게 자랑하려 하는 것이다. 단소는 이 네 가지 병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 詩의 ‘佳境’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단언했다.<sup>64)</sup>

61) 『詩學逢原』 卷之下, 「雅俗」, “雅なればききよろしく、俗なればきき悪き故、雅を好み俗を嫌ふ故、…… 痛く俗を去ること、詩病醫方の第一義なり。”

62) 『詩學逢原』 卷之上, 「詩有境趣」, “畫に比して勝劣を論ずるは吾が趣なり。”

63)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生涯一佳句を得ずして終る者多し。佳句は多くは景を寫す句にあり。”

64)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詩を学ぶ者、四の疾あり。一には速に成るを求めて、槌練苦思すること能はず。二には多く作るを貪りて、巧拙を擇ばず。三には全篇の疵なきを求めて、佳句を得るの望なし。四には難題を務めて人に誇らんとす。”

## 7) 妙/味

妙와 味 역시 『단소시와』에서 더 많이 사용된 어휘로, 妙는 주로 詩評의 내용에서 출현하며 味는 古詩뿐만 아니라 자신의 詩 역시 ‘그 味를 알아야 한다’는 문맥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 味와 관련해 『단소시와』는 作詩라는 행위의 목적, 즉 각각의 詩 고유의 味를 찾아내 이를 詩로 표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古詩의 중요성과 다시 연결되는 지점인데, 단소는 “무릇 지금 사람들은 시 짓기를 좋아하면서 古詩를 읽는 것은 싫어한다. 그렇기 때문에 (詩를) 읽는다고 하나 그 味를 알지 못한다. 이미 古詩의 味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詩에 味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字를 늘어놓을 뿐이다. 이런 이들은 詩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sup>65)</sup>며 당시의 시단을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단소는 古詩를 ‘읽는 것’으로부터 詩法이 시작되고 ‘그 味를 알게 됨’으로 詩가 완성됨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 IV. 분석 결과—동사를 중심으로

지금부터는 동사 어휘에 나타난 공통점과 상이점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 분석한 명사 어휘가 詩話의 중요 개념을 보여준다면 동사 어휘는 두 詩話가 詩를 대하는 태도와 각각의 지향점을 선명히 보여줄 것이다. 우선 두 詩話에서 공통적으로 자주 등장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의 결과값과 같다.

---

此四疾除かざれば、生涯詩の佳境に到ることなし。”

65) 『淡窓詩話』卷之下, 「汎く詩を論ず」, “凡そ今の人、詩を作ることを好んで、古詩を讀むことを好まず。故に之を讀むと雖も其味を知らず。既に古詩の味を知らず、故に又己が詩の味あると味なきとを知らず。ただ漫然と字を並ねたるのみ。此の如きの人、與に詩を言ふべからず。”

〈표 4〉 (1)양쪽 모두에 등장하며 출현 빈도가 비슷한 동사 어휘 (○)는 카운트값/상대빈도, %는 생략)<sup>66)</sup>

	단소시와	시가쿠호젠
동사	作る(49/0.26) 見る(36/0.19) 至る(18/0.10) 取る(12/0.06) 思ふ(10/0.05) 論ずる(11/0.06)	作る(40/0.29) 見る(21/0.15) 至る(34/0.21) 取る(24/0.15) 思ふ(20/0.13) 論ずる(18/0.11)

두 詩話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동사가 ‘作る(짓다)’라는 점은 詩話라는 장르의 특성 상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다만 詩話가 詩論과 詩評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가쿠호젠』과 『단소시와』는 모두 시를 잘 짓는 법 즉, 詩論에 중점을 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시가쿠호젠』에서는 ‘잘 이해하고 지어야 한다(心得て作るべし)’, ‘(詩를) 짓고 외워야 한다(作り覺ゆべきなり)’ 등의 문장이 자주 등장하였고 “무릇 사람이 詩를 지을 때 자연스럽게 強弱이 있다. 가령 사람의 성질에 剛柔肥瘦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sup>67)</sup>라고 하였고, 『단소시와』에서는 ‘詩를 짓는 사람은 윤택하고 通達하며, 文雅가 있는데 이는 詩는 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논하기도 하였다.<sup>68)</sup>

다음으로 ‘見る’는 양쪽 모두에서 단순히 ‘보다’의 의미를 넘어 ‘詩의 정교함과 부족함(工拙)’ ‘詩의 짓는 방식(作式)’, ‘三體詩’, ‘풍경’ 등을 ‘살펴보다’는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앞서 『단소시와』에서는 단소 자신을 나타내는 어휘 ‘予(나)’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는데 ‘내가 살펴본 부분에서는(予が見る所を以てするに) 이 二句는 전혀 味가 없다’의 예처럼 ‘予’와 ‘見る’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66) 표에 제시한 동사 어휘의 기본형은 형태소분석 결과값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이들 각 어휘의 사용 용례는 본문과의 대조를 통해 확인하였다.

67) 『詩學逢原』 卷之下, 「詩有強弱」, “凡そ人の詩を作るに、自然と強弱あり。譬(たと)えば人の性質、剛柔肥瘦あるに同じ。”

68) 『단소시와』의 본문에서는 시를 짓는 사람과 시를 즐기지 않는 사람의 다른 점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본문 인용 내용은 밑줄 부분에 해당한다. 『淡窓詩話』 卷之上, 「問 詩を學ぶの益は、孔子の言に盡せり。然れども今の詩は古の詩に非ず。故に世儒務めて其無用を論ず。如何心得べきや、詩を作る人と詩を好まざる人と異なる所あるを見るべし。詩を作る人は溫潤なり。詩を好まざる人は刻薄なり。詩を作る者は通達なり。詩を作らざる者偏僻なり。詩を作る者は文雅なり。詩を作らざる者は野鄙なり。其故何ぞや。詩は情より出ずるものなり。”

많은 것으로 보아 ‘見る’는 필자의 관점을 반영하는 동사라 할 수 있다. 이 외에 ‘至る(이르다)’는 두 詩話 모두 ‘특정 시대에 이르러’라는 뜻으로 사용된 어휘였으며 ‘取る(취하다)’는 특히 『시가쿠호겐』에서는 斷章取義와 연관된 ‘뜻을 취하다’는 의미로 다수 등장하였다.

한편 ‘論ずる(논하다)’ 역시 詩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가령 『시가쿠호겐』에서 “그런 이유로 오늘날의 우리(我輩)가 짓는 (詩의) 품격은 둘째치더라도 적어도 本意에 있어서 (唐詩에) 뒤지지 않는 점은 斯道の 큰 축복이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앞선 詩의 원류를 다음과 같이 논한다.”<sup>69)</sup>고 하였고, 『단소시와』에서는 “후학을 교육시키려면 詩로써 가르쳐야 한다. 그때를 위하여 詩를 배우는 유익함에 대해 논해야 한다.”<sup>70)</sup>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예를 통해 볼 때 ‘作る(짓다)’, ‘見る(살펴보다)’, ‘至る(이르다)’, ‘取る(취하다)’, ‘思ふ(생각하다)’, ‘論ずる(논하다)’ 등은 학습자이자 감상자로서 시인이 갖추어야 할 태도와 詩話의 보편성을 잘 드러낸 어휘라 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가쿠호겐』과 『단소시와』에서 큰 빈도차를 보이며 출현한 동사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유의미한 어휘들을 <표 5>와 같이 정리해 보았는데 전체 결과값을 보면 『시가쿠호겐』에서 객관적인 詩論과 관련한 어휘가 자주 등장한다면 『단소시와』에서는 ‘배우고 좋아하고, 얻고, 읽고, 읊기는’ 등의 행위가 강조되고 나아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등 시인의 주체적 행위를 강조한 詩論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에서는 <표 5>의 결과값을 바탕으로 각 詩話별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자.

69)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故に今日我輩、造り出す所の品はともあれ、せめて本意に負かざらんは、斯道の幸なるべし。我故に先詩の源流を論ずること右の如し。”

70) 『淡窓詩話』 卷之上, 「問 詩を學ぶの益は、孔子の言に盡せり。然れども今の詩は古の詩に非ず。故に世儒務めて其無用を論ず。如何心得べきや」, “然れども他日後進を教育することあらんに、詩を以て教ふる事あるべし。其時の爲めに、詩を學ぶの益を論ずべし。”

〈표 5〉 (2)양쪽 모두에 출현하나 출현 빈도의 차이가 큰 동사 어휘(상대빈도 %는 생략)

동사	단소시와		시가쿠호겐	
	카운트	상대빈도	카운트	상대빈도
어휘명/뜻				
錬る(정제하다)	1	0.01	12	0.09
示す(제시하다)	1	0.01	11	0.08
心得る(유념하다)	2	0.01	7	0.05
感ずる(느끼다)	1	0.01	6	0.04
學ぶ(배우다)	79	0.42	9	0.07
好む(좋아하다)	41	0.22	3	0.02
得る(얻다)	31	0.17	5	0.04
讀む(읽다)	28	0.15	2	0.01
寫す(옮기다)	26	0.14	2	0.01
愛す(사랑하다)	7	0.04	1	0.01
喜ぶ(기뻐하다)	6	0.03	1	0.01

### 1) 『시가쿠호겐』

우선 『시가쿠호겐』에서는 ‘錬る(정제하다)’, ‘示す(제시하다)’, ‘心得る(유념하다)’, ‘感ずる(느끼다)’ 등의 동사의 출현 빈도가 높았다. ‘錬る(정제하다)’는 주로 ‘字眼’의 이론과 연결되어 등장하는데 字眼이 ‘詩文 전체의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글자’를 뜻하는 만큼, 『시가쿠호겐』에서는 字眼을 결정하기까지 생각을 짜내고, 정제해야 한다는 의미로 ‘錬る’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를 보고) 字眼의 맛을 알아야 한다. 다만 정제해야 할 字句의 핵심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第一字부터 第七字까지 句의 罅(縫い目)을 정제해야 한다.”<sup>71)</sup>라고 했는데 이러한 字眼의 정제는 번잡하지 않은 평상의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며 字를 정제함으로 ‘철을 정제하여 금이 되듯 평범한 문장이 훌륭한 문장으로 완성(鍛(てつ)を點じて金と成す)’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示す(제시하다)’의 경우, 『시가쿠호겐』의 詩論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 주로 등장하는 어휘이다. 예를 들어, “詩는 歌謠이다. 모두 詩를

71) 『詩學逢原』卷之下, 「字眼」, “是を見て、字眼の味を知るべし。但其の錬るべき字句の腰のみにあらず。前に云うとおり、第一字より第七字まで、句の縫い目の所を錬るべし。”

빌어 가르침을 세우기에 詩는 聖人, 옛날 음악의 唱歌, 인간의 戒가 되고 가르침이 되는 부분을 삼백여 편을 골라내 후세에 제시한 것이다.”<sup>72)</sup>라고 서술하였는데 난카이 자신도 “常語를 그저 나열하기만 해서는 천수를 짓더라도 詩가 아니라 이야기(咄)이다. 그런 이유로 나는 우선 처음에 常語를 제거하고 詩語가 되는 수단을 제시한다.”<sup>73)</sup>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가쿠호겐』을 통해 난카이가 올바른 作詩의 詩法을 알려주는 교과서적인 기능에 충실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유념하다’, ‘충분히 이해하다’의 뜻을 가진 ‘心得る’의 예를 살펴보자. ‘心得る’는 『시가쿠호겐』의 하권 ‘詩有輕重清濁大小緩急’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맑은 것(清)이라면 맑게, 탁한 것(濁)이라면 탁하게, 가벼운 것(輕)은 마찬가지로 가볍게, 무거움(重)은 무겁게 크고 작고 느리고 급함(大小緩急)도 이와 같이 조화로워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對句 때에도 옆 句와 오른쪽의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유념하여 지어야 한다.”<sup>74)</sup>고 강조한 내용과 같다. 마지막으로 ‘느끼다’의 ‘感ずる’의 경우, 詩의 소리를 듣고 어떤 것이 느껴지느냐가 중요하다는 문장 속에서 등장하는 어휘이다. 특히 『시가쿠호겐』에서는 詩에서 일상어인 常語의 사용을 금지 하면서 ‘아름다운 정취를 말할 때 이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어쩔 줄 모르겠다고 말하면 그걸로 끝일 뿐 굳이 詩로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입에서 나오면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 文이 없어서 아무리 말해도 情이 퍼질 수 없다. 듣는 이에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재미있지도 않다.”<sup>75)</sup>고 주장한다. 즉, 소리를 雅의 문장으로 완성할 때 비로소 詩라 할 수 있으며 이때 듣는 이에게 무언가를 ‘느끼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72)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詩は歌謠なり。皆これを借て教を設く故、詩は聖人、昔の音樂の唱歌、人の戒となり、教となるべき者を、三百餘篇選み、後世に示されたり。”

73)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常語をならべたる分にては、千萬首作りても、詩には非ず。咄(はなし)なり。故に予先づ初めに常語を去り、詩語になる手段を示すこと左の如し。”

74) 『詩學逢原』 卷之下, 「詩有輕重清濁大小緩急」, “清ならば清、濁ならば濁、輕は同じく輕く、重くは同じく重く、大小緩急も同じくつり合うを云う。又對句の時も鄰の句と右のつり合いを違(たが)わぬように、心得て作るべし。”

75) 『詩學逢原』 卷之上, 「詩語常語取義」, “口より出れば、聲は聲ながら、文なき故、たとひ云ひても、情も暢ことを得ず。聞者も、なにの感ずることも、面白きこともなし。”

## 2) 『단소시와』

『단소시와』에서의 결과값은 『시가쿠호겐』과 달리 ‘감상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다수 등장하는 관계로 ①‘학습자’의 행위와 ②‘감상자’의 행위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①에 해당하는 어휘로는 學ぶ(배우다), 得る(얻다), 讀む(읽다), 寫す(옮기다)가 있으며 ②는 好む(좋아하다), 愛す(사랑하다), 喜ぶ(기뻐하다)가 있다. 특히 ‘학습자’의 행위에서도 『시가쿠호겐』에 등장한 鍊る(정제하다), 示す(제시하다), 心得る(유념하다), 感ずる(느끼다)의 어휘군과는 전혀 다른 어휘가 사용되었으며 『시가쿠호겐』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감상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출현한 점은 흥미롭다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①에서 단소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 어휘는 ‘學ぶ(배우다)’였다. 『단소시와』에서는 당대 일본 지식인뿐만 아니라 唐부터 淸의 시인들이 누구에게서 어떤 詩法, 詩體를 어떤 문헌에서 배웠는지까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또한 ‘學ぶ’라는 동사는 ‘배우다’의 의미뿐 아니라 ‘배우게 하다(學ばしむ)’는 의미로도 등장하는데 이는 『단소시와』에는 단소가 제자들에게 詩를 가르친 교육관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당시 일본 지식인들에게 詩를 짓기 전에 먼저 제대로 ‘배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술이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得る(얻다)’의 경우, ‘깨달음(悟)’이라는 어휘와 함께 출현할 때가 많았다. 단소는 宋의 시론가 嚴羽의 『滄浪詩話』에서 시작된 ‘詩에서의 禪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만약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자세하게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는 詩를 배운 지 사십여년이 흘렀는데 지금 체득한 것의 대부분은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얻은 것이다. …… 지금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古詩를 熟讀해야 한다.”<sup>76)</sup>라고 하였고 “나는 이 두 수의 詩를 통해 短古의 취향에 대해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sup>77)</sup>는 등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그 외에도 ‘得る(얻다)’는 ‘평생 하나의 佳句도 없지 못하고 끝나는 자도 많다’와 같이 ‘佳句’와 연관되는 경우도 보였다.

76) 『淡窓詩話』 卷之上, 「問 詩は禪の如し悟を得るに在りと。小子輩如何なる處に力を著けて悟を得べきや。」, “若し悟を得んと欲せば、精思研窮するの外なし。予詩を學びしより四十餘年、今日の得る所、大抵悟入なり。…… 今悟を得んと欲せば、先づ古詩を熟讀すべし。”

77) 『淡窓詩話』 卷之上, 「問 一句一聯の妙處は、古人の論を聞きて之を曉れり。篇法の妙に至りては、未だ窺ひ知ること能はず。願はくば其一端を聞かん。」, “予此二首に於て、頗る短古の趣を悟ることを得たり。”

앞서 ‘古詩를 熟讀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단소시와』에서는 학습자의 태도로 ‘讀む’ 즉,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하고 시 짓기에만 열중하고 시나 문헌을 읽지 않는 당시 시단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가령 “일본(我邦) 사람은 책을 많이 읽지 않아 견식이 없고 남을 똑같이 따라 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를 이름 붙여 ‘矮人觀場’이라고 한다. …… 그런 이유로 古書를 많이 읽은 후에 자신의 성향에 잘 맞는 것, 재능에 가까운 것을 골라 배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sup>78)</sup>고 주장한다. 한편 단소가 읽으라고 강조한 詩와 서적 중에는 고대 중국 시인뿐만 아니라 淸의 시인, 일본인 등 다양한 인물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가령 白樂天의 詩는 평이하지만 유려하여 쉽게 배울 수 있으니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淸詩는 元典을 사용하는 법, 對句를 취하는 법, 논의를 펼치는데 아주 巧하여, 이를 읽으면 독자의 취향이 살아난다고 논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인의 詩는 아주 쉽게 읽히는 장점이 있다고 피력하면서 “리쿠노(六如, 1734~1801)와 간 차잔(菅茶山, 1748~1827), 라이산요(賴山陽, 1781~1832) 등은 모두 뛰어난 시인이다. 단 (그들의 詩)는 상당히 爛熟한데 독자는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正享 때 明의 詩體를 배운 사람의 詩는 너무 날 것이며 宋의 詩體를 배운 사람의 詩는 너무 농익었다.”<sup>79)</sup>라고 평하였다. 단소가 언급한 리쿠노는 의사이자 시인, 간 차잔과 라이산요는 유학자이자 시인으로 19세기 근세 지식인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펼친 이들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소시와』에서 ‘읽기’가 詩를 배우기 위한 핵심 행위이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寫す(옮기다)’에 대해 알아보자. 물론 여기서 옮긴다는 것은 詩에서의 묘사를 의미한다. 『단소시와』에서는 “陶淵明에 이르러 처음으로 전원의 한적한 풍경을 옮겼다. …… 지금까지 내가 본 것에 의하면 古今의 풍경을 옮겨놓은 묘미는 杜甫(少陵)와 王維(摩詰)가 가장 뛰어나다<sup>80)</sup>”와 같이 경치나 풍경(景)이라는 어휘와 함께

78) 『淡窓詩話』 卷之下, 「汎く詩を論ず」, “我邦の人は書を讀むこと多からず。故に見識なくして、人の真似をすることを專一心掛くるなり。是を名けて矮人觀場と曰ふ。…… 故に多く古集を讀み、而後己が性の好む處と、才の近き處とを擇んで、之を學ぶに如くはなし。”

79)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六如茶山山陽など皆名家なる。但爛熟に過ぎたり。讀者其心得あるべし。正享の際、明體を學ぶ者の詩は、生に過ぎ、宋體を學ぶ者は、熟に過ぎたり。”

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情神, 情, 態, 意, 心 등과도 함께 출현하였다. 반면 “지금 사람의 詩는 風流의 모습을 옹기는 데 급급하다. 綸巾을 얹히고 竹杖을 앞에 두고, 향을 피우고, 차를 끓여 놓고 세상일을 잊어버리고 유유자적하는 등, 모든 詩에 이러한 묘사가 들어가 있다.”<sup>81)</sup>고 지적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시단에 대한 비판의 시선도 느껴진다.

다음으로는 ②감상자의 행위를 나타내는 ‘好む(좋아하다)’, ‘愛す(사랑하다)’, ‘喜ぶ(기뻐하다)’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이 어휘들은 『시가쿠호겐』에도 낮은 빈도로 출현하기는 하지만 필자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을 대변하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반면 『단소시와』에서 이 어휘들은 행위 주체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愛す(사랑하다)’는 詩, 語, 景 등과 함께 나타나기도 했지만 ‘나는 사물의 풍취를 사랑한다(吾は物の風趣を愛す)’나 ‘宋詩의 취향을 사랑해야 한다(宋詩の趣は愛すべし)’와 같이 단소 자신의 詩論을 서술하는데 사용되기도 하였다. ‘喜ぶ(기뻐하다)’ 역시 단소의 詩 감상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휘라 할 수 있다. 『단소시와』에서는 “나는 詩의 간결함을 기뻐하고, 번거로운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강한 것(峭勁)을 기뻐하고 약한 것(浮緩)을 기뻐하지 않는다. 자연 속의 즐거움(漫興)과 번민을 떨친(破悶) 작품을 기뻐하고 영물(詠物) 시편을 기뻐하지 않는다.”<sup>82)</sup>라고 해, 단소가 어떤 詩風을 선호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好む(좋아하다)’라는 어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소시와』에서 ‘好む’는 41회나 출현해 『시가쿠호겐』의 3회 출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된 동사이다. 또한 『단소시와』에서의 ‘好む’의 주체가 단소 자신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시가쿠호겐』과 대비되는 점이다. 단소는 철저히 ‘좋아함’을 기준으로 詩를 향유하였는데 가령, “시 짓는 사람과 詩를 좋아하지 않는(好まざる) 사람 사이에

80)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陶王孟韋柳の詩を好み玉ふと聞及べり。五家の妙處及び長短、何れの處にありや。’, “淵明に至りて、始めて田園閒適の景を寫す。…… 子が見る所を以てするに、古今景を寫すの妙は、少陵摩詰の二家を最とす。”

81) 『淡窓詩話』 卷之下, 「中川玄佳問 詩を作るの要、何を以て先とすべきや。’, “今人の詩、務めて風流の態を寫す。綸巾を載き、竹杖を曳き、香を焚き茶を煎じ、世事を忘却して、悠然自得すること等、詩として之れ無きはなし。”

82) 『淡窓詩話』 卷之下, 「汎く詩を論ず。’, “子が詩簡潔を喜び、繁縟を喜ばず。峭勁を喜び、浮緩を喜ばず。漫興破悶の作を喜び、課題詠物の什を喜ばず。”

다른 점이 존재한다. 시 짓는 사람은 윤택(潤)하다. 詩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각박하다. …… 詩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好まざる) 것은 그 사람의 천성에 情이 적기 때문이다.”<sup>83)</sup>라고 하였다. 詩를 ‘짓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비시킨 점이 흥미로운데 단소에게 詩를 짓는 행위는 좋아함과 동의어로 인식되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단소는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문하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문하에 시인이 많은 것은 (그들이) 내가 詩를 좋아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라고 권한 것은 아니다. 또한 (어떠한) 비결이 있어서 전했기 때문도 아니다. 그저 내가 詩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을 뿐이다.”<sup>84)</sup>라고 쓰고 있다. “나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를 뿐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說)를 따르게 할 생각은 없다. 만약 남들이 좋아하는 것이 (나와) 같다면 나를 따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좋아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나의) 門人이라해도 억지로 같아지게 할 수는 없다.”<sup>85)</sup>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무조건 스승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따르라는 주장은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주관을 확실해야 한다는 권면이자 단소의 교육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소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性情을 주로 삼으면서 格調를 폐하지 않는 둘 사이의 중간을 취하는 것이다. 享保 시대에는 明(의 詩)를 배웠고, 天明 시대에는 宋을 배웠다. 나는 唐人을 중심으로 宋과 明을 겸용한다. 이것이 (詩에 있어서)내가 좋아하는 것이다.”<sup>86)</sup>라고 밝히고 있다. 『시가쿠호젠』의

83) 『淡窓詩話』 卷之上, 「問 詩を學ぶの益は、孔子の言に盡せり。然れども今の詩は古の詩に非ず。故に世儒務めて其無用を論ず。如何心得べきや、’, “詩を作る人と詩を好まざる人と異なる所あるを見るべし。詩を作る人は温潤なり。詩を好まざる人は刻薄なり。…… 詩を好まざるは、其人の天性に情少なきが故なり。”

84) 『淡窓詩話』 卷之上, 「青木益問 當今の詩人、我門より盛なるはなし。宜園百家詩抄の如き、世の傳誦する所なり。……’, “門下詩人の多きこと、是子が詩を好むを見て、之に倣ふなり。子強て之を勸めしに非ず。亦秘訣ありて之に傳へしにも非ず。今且子が詩を好む所以を談ずべし。”

85)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 論詩 詩の結末に、「誰明 六義要。以起一時衰。」とあり。如何なる處を以て、今時の衰を起し玉ふや、’, “故に子は只子が好む所に從ふのみ。廣く世人を誘ひて子が說に從はしむるの意なし。若し人が好む所と同じきものあらば、子に從ふも可なり。若し好む所同じからざれば、門人とても強て同うす可らず。”

86) 『淡窓詩話』 卷之上, 「問 先生 論詩 詩の結末に、「誰明 六義要。以起一時衰。」とあり。如何なる處を以て、今時の衰を起し玉ふや、’, “子が好む所は、性情を主として格調を廢せず、二つのもの、

주된 내용은 18세기 중반의 唐詩에 경도된 格調派의 기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의 일본 詩壇은 『단소시와』에서 나타나듯 格調와 性靈 모두를 긍정하며 절충적인 시풍이 정착한 상태였다.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변화를 대변하는 어휘로 ‘好む’ 즉, ‘좋아하다’라는 동사가 빈번히 출현한다는 점인데, 달리 말하면 ‘好む’는 『단소시와』가 강조하듯 여러 風의 詩를 ‘배우고’, ‘읽고’, ‘옹기는’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일 것이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기온 난카이시의 『시가쿠호젠』(1763)과 히로세 단소의 『단소시와』(1883)를 중심으로 형태소 분석과 원문 분석을 통해 두 詩話의 어휘 사용 양상의 특징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특히 정량적 방법으로는 두 詩話의 원문을 수집하고 데이터화한 후, 일본어 형태소 분석 도구인 Janome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 중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명사와 동사에 초점을 맞춰 결과값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명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한 ‘詩’와 ‘人’, ‘云’ 이외에도 ‘情’과 ‘心’, ‘意’, ‘雅俗’, ‘人情’ 등과 같이 詩의 핵심 개념이자 詩話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이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현 빈도가 달랐던 명사 어휘를 통해서는 唐詩를 중시한 『시가쿠호젠』의 입장과 달리 특정 시기의 시인이나 詩派, 詩風에 경도되지 않는 『단소시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인식, 詩를 통해 실현하고자 한 주요 개념의 차이 등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한편, 동사 어휘의 분석을 통해서는 두 詩話가 詩를 대하는 태도와 각각이 지향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시가쿠호젠』과 『단소시와』 모두 평론보다는 시를 잘 짓는 법에 중점을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作る(짓다)’, ‘見る(살펴보다)’, ‘至る(이르다)’, ‘取る(취하다)’, ‘思ふ(생각하다)’, ‘論ずる(논하다)’ 등의 동사는 학습자, 감상자로서 시인이 가져야 할 태도와 詩話의 보편성을

---

中を取るなり。享保は明を學び、天明は宋を學ぶ。予は唐人を主として宋明を兼用す。是れ予が好む所なり。”

나타내는 어휘라 할 수 있다. 반면 두 詩話에서 출현 빈도가 달랐던 동사의 경우, 『시카쿠호겐』에서 객관적인 詩論과 연관된 동사가 자주 등장한 반면 『단소시와』에서는 ‘배우고 좋아하고, 얻고, 읽고, 읊기는’ 행위가 강조되었고 나아가 ‘愛す(사랑하다)’, ‘喜ぶ(기뻐한다)’ 등, 시인 자신의 주체성을 나타내는 어휘로 詩論이 전개되었다. 특히 시대의 변화 속에서 詩話의 변천을 대변하는 어휘로 ‘好む(좋아하다)’를 꼽을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에도 중기와 말기 유학자의 시선으로 본 ‘詩’에 대한 인식 양상을 형태소라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가 기존 ‘정성적 분석’ 논문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 전체 텍스트의 데이터화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판정 기준에 따라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는 점이다. 기존의 ‘정성적’ 방식에서는 각각의 대상을 세밀히 들여다봄으로써 연구자의 판단이나 주관이 반영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정량적’ 방식에서는 객관성이라는 큰 틀에서 데이터에 접근해야 하며 이를 통해 나온 결과값의 ‘해석’ 역시 객관성이 담보될 필요가 있다. 이는 달리 표현하자면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와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방식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87)</sup> 분명한 것은 두 연구 방법 모두 유의미한 결과 도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의 병행이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고는 이 두 연구 방식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고민한 試論에 가깝지만 본 연구 방법과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주요 詩話의 데이터화가 추가로 진행된다면 어휘의 비교를 통해 시대별 詩話의 특징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분석 대상 텍스트가 근세 일본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返点 처리나 文語의 형태소 분석 정확도 확인 등의 데이터 전처리와 결과값의 형태소 판정 오류의 확인 및 수정 등의 후처리 등 형태소 분석 과정의 정밀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 또한 정량적 분석 방법 역시 형태소 분석 이외의 N-gram, BERT 등의 다양한 시도를 통해 결과값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량적 분석 방법을 통해 유의미한 연구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원문 분석에 근거한

87)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는 프랑코 모레티(Franco Moretti)에 의해 제창된 문학 연구 개념으로 ‘멀리서 읽기(distant reading)’ 방식과 ‘가까이 읽기(close reading)’과 ‘멀리서 읽기’의 병행론은 실제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수시로 차용되는 논리이다.

정성적 연구가 먼저 철저히 수행되어야 하며, 정성적 연구를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물과의 비교 역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본 연구 방법을 통한 詩話의 ‘해석’이 『시가쿠호겐』과 『단소시와』의 정성적 분석 결과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시대별 다른 詩話와의 종합적인 비교를 통해 근세 일본 지식인 사회의 ‘詩’에 대한 인식과 변화 양상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투고일: 2023.07.13

심사일: 2023.08.28

게재확정일: 2023.09.19

## 참고문헌

- 김현·임영상·김바로, 『디지털 인문학 입문』, HUEBOOKS, 2016
- 中野三敏, 『十八世紀の江戸文芸』, 岩波書店, 1991
- 中村幸彦(校注)『近世文学論集』(日本古典文学大系, 第94), 岩波書店, 1966
- 고지마 야스노리(小島康敬), 「히로세 탄소(廣瀨淡窓)와 丁茶山-‘以心制心’ ‘以禮制心’ ‘以天制心’」, 『한국실학연구』 18, 한국실학학회, 2009
- 손영석·이창익, 「구어 일본어 형태소 정보부여를 위한 형태소 분석 프로그램의 활용과 문제점」, 『일본언어문화』 22,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2
- 양승목·유인태, 「아담의 데이터, 아담으로부터의 데이터: 한국 아담 데이터 모델의 구상」, 『한국문학연구』 68, 한국문학연구소, 2022
- 정경진, 「일본 문인화의 선구자 기온 난카이(祇園南海)의 시론-『시가쿠호겐(詩学逢原)』(1763)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1,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1
- \_\_\_\_\_, 「기온 난카이(祇園南海)의 시론으로 보는 雅谷「詩学逢原」(1763)과 「南海詩訣」(1787)를 중심으로」, 『비교일본학』, 53, 일본학국제비교연구소, 2021
- 한희연·지영원·호정·유인태, 「한국 詩話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현 방안 모색-詩話叢林」 대상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을 중심으로」, 『한문학논집』 63, 근역한문학회, 2022
- 市村太郎, 小木曾智信, 「文書構造を利用した近世期洒落本の形態素解析」, 『言語処理学会年次大会発表論文集(Web)』 22, 言語処理学会, 2016
- 白石真子, 「「アイシライ」の文学: 祇園南海『明詩俚評』に示された「影写」法」, 『金城学院大学論集. 人文科学編』 10, 金城学院大学, 2013
- \_\_\_\_\_, 「廣瀨淡窓の詩論における「精思研窮」の意味: 君子修養のための漢詩教育」, 『金城学院大学論集. 人文科学編』 16(2), 金城学院大学, 2020
- 鈴木健一, 「江戸詩歌史賞書」, 『日本文学』 60, 日本文学協会, 2011
- 高橋昌彦 「『淡窓詩話』と『醒齋語録』」, 『語文研究』 130, 九州大学国語国文学会, 2021
- 田中加代, 「廣瀨淡窓の教育思想の系譜」, 『教育学研究』 58, 一般社団法人日本教育学会, 1991
- 福田名津子, 「「デジタル・ヒューマニティーズ2.0」がもたらす人文・社会科学への影響: 平成27年度デジタル・ヒューマニティーズ関連ワークショップ」, 『一橋大学附属図書館研究開発室年報』 4, 一橋大学附属図書館研究開発室, 2016
- 前田勉, 「廣瀨淡窓における学校と社会」, 『日本文化論叢』 17, 愛知教育大学日本文化研究室, 2009
- 村山実和子, 銭谷真人, 藤本灯, 岡照晃, 「近世後期口語資料の形態素解析-ルビ情報を利用した精度向上の試み」, 『じんもんこん2016論文集』, 2016

米山弘, 「教師, 広瀬淡窓について - その1 -」, 『鎌倉女子大学学術研究所報』 7, 鎌倉女子大学, 2007

『시가쿠호젠』의 원문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고쿠쇼데이터베이스(国書データベース)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224600/>

『단소시와』의 원문

와세다(早稲田)대학교 고전적종합데이터베이스(古典籍総合データベース)

[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bunko17/bunko17\\_w0059/](https://www.wul.waseda.ac.jp/kotenseki/html/bunko17/bunko17_w0059/)

일본 국문학연구자료관 고쿠쇼데이터베이스(国書データベース)

<https://kokusho.nijl.ac.jp/biblio/100288428/>

#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Early Modern Japanese Poetry through Morphological Analysis — Focusing on the Shigakuhogen (1763) and Tanso Shihwa (1883)

Jeong, Kyung-jin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Shigakuhogen (1763) by Gion Nankai (1676~1751), a scholar and literary artist from the middle of the Edo period, and Dansōshiwa (1883) by Hirose Dansō (1782~1856), a scholar and educator from the early Meiji period (1868~1912). Considering the role of poetry narratives in providing a variety of information about poetry, this study simultaneously conducted a quantitative morphological analysis and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textual analysis to examine the us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vocabulary in the two poetry narratives. Through this analysis, we were able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two poetry tales in detail, and we were able to specifically identify the perception of ‘poetry’ by Japanese intellectuals in the early modern era and its changes.

Key Words : Shigakuhogen, Gion Nankai, an essay on poetry, Hirose Dansō,  
Dansōshiwa

